

실전 퀀트

내년 주도주에 대한 소고(구관이 명관)

베트를 길게 잡는 습관을 들이자

기관 순매수가 높았던 종목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감익 1년 차인 내년까지 이러한 시장성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극단적인 가정으로 최근 1년 동안 기관들의 순매수강도가 높아진 종목군들을 매수(롱)하고 반대로 순매도강도가 높은 종목군을 매도(숏)하는 상당히 후행적인 전략이 성과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에스모, 테스나, 한국카본, 인크로스, 아프리카TV, JYP Ent., 에스엔, 두산밥캣, HSD엔진, 이수페타시스, 신세계 I&C, 동성화인텍, 티엘아이, 태광, 성광벤드, 씨에스윈드, 서울반도체, 네오팜, 큐브엔터, 게임빌 등 1년 간 기관 순매수가 전 종목 중 가장 높았던 종목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모두가 오른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님을 유의).

감익시기 기관들이 유일하게 관심있는 것은 내 종목의 성과 도모

새로운 종목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지만 이러한 전략이 대세로 보기는 어렵다(Core가 아닌 Satellite 전략). 기존 주력 종목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올라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론 연말까지는 모두가 원도우드레싱에 혈안이라고 가정하고, 내년 1월의 수급이 이슈이긴 하지만 기존 미디어/엔터, 조선 등의 주력 섹터가 새로운 테마로 로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만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경기 상황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향후 당분간 지속될 국내 기업이익 '감익' 시기에서는 대형주로부터 수급의 낙수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급은 매우 알파 지향적인 특징일 가질 것이다. 지수를 헛지하기 위해 운용자 본인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 수급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이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향후 스토리텔링이 주가로 유연하게 반영되기 좋은 미디어/엔터와 조선 섹터는 내년에도 주도주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한다.

Late Cycle 후 한국 기업이익 증익 시기까지 성장 핵심 주도주에 집중

물론 대형주의 수급을 내려받은 개별종목군은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실적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자의적인 타깃 밸류에이션 상향 등의 액션을 통해 주가 상승이 정당화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액션은 낮은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지수를 방어하는 알파 전략으로 기관 수급의 담합을 묵인하게 한다. 한 마디로 베타(지수)를 쥐어짜서 알파(종목)를 생성시키는 것이다. 공매도가 우려스러울 수 있겠지만 시총이 상대적으로 작고 기관들의 수급 집중력을 끌 수 있는 핵심 성장테마에 속한 종목군은 오히려 숏커버를 이끌어내며 추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감익 시기의 특정 성장테마의 버블은 대형주의 증익 시기가 도래했을 때, 비로소 대형주로 흡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이미 진입되어있는 쪽에 대한 알파는 Core 전략으로 유망하고 단기적으로 기관 수급모멘텀이 높아진 종목군에 대한 중장기 가능성에 대한 베팅은 Satellite 전략이 될 수 있겠다.

Quant



퀀트 이경수
02-3771-7518
gang@hanafn.com

RA 최영환
02-3771-7515
core@hanafn.com

단기 기관 수급모멘텀 상위 종목군

종목	1일 순매수강도	20일 순매수강도
셀리버리	0.78	0.78
셀바이오텍	0.65	2.97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0.34	0.56
케이피에프	0.32	0.96
메가스터디교육	0.31	4.09
잉글우드랩	0.29	3.21
슈프리마	0.27	6.81
포스코엔텍	0.27	0.67
디와이파워	0.27	2.70
바른전자	0.25	0.20
종근당	0.23	1.33
신세계인테리어	0.22	1.86
서연이화	0.21	0.38
원익테라세미콘	0.21	2.72
디에이치피코리아	0.19	0.19
노루페인트	0.17	1.90
코오롱생명과학	0.16	0.94
SBI핀테크솔루션즈	0.16	3.89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주1: 기관순매수강도는 기관순매수대금/시가총액*100

중장기 기관 수급모멘텀 상위 종목군

종목	60일 순매수강도	1년 순매수강도
와이지엔터테인먼트	4.34	24.72
에스엔	4.72	15.79
두산밥캣	1.41	15.31
이수페타시스	14.33	13.05
신세계 I&C	5.62	12.88
동성화인텍	4.64	12.42
티엘아이	7.30	11.84
태광	1.85	11.55
성광벤드	3.84	11.45
씨에스윈드	3.01	10.20
서울반도체	6.39	9.82
큐브엔터	3.13	9.60
코나아이	1.92	9.56
게임빌	5.02	9.50
현대미포조선	2.86	9.01
링네트	4.85	8.66
녹원씨엔아이	6.62	8.49
다나와	2.98	8.47
슈프리마	6.99	8.17
CJ대한통운	2.14	8.15
삼천당제약	2.22	8.06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주1: 기관순매수강도는 기관순매수대금/시가총액*100